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처음 느껴본 감정..

오늘은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기 전 송별회를 한다고 12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버려서 내 친구와 나는 그 애들을 따라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을 다 먹고 이젠 같이 놀 수 있으려나 했지만 이번에는 야구를 하러 간다고 했다. 그렇게 또 2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가는 동안 나와 내 친구는 할것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친구가 야구를 하는 곳에 가니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갔고 나도 내 친구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친구를 만났다. 내 친구와 그 친구를 지하철 역까지 배려다 줄 때 그 친구는 나에게 자기를 좋아해 주지 말아달라고 했다. 사실 나는 4일전에 그 친구에게 고백을 했었다. 내가 차인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다. 어유도 말안응하고 하필 거기서 짝꿍 우리반 남자 애를 만 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버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곰곰히 생각해 보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날 좋아하지 말아줘"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사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차일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겪었다고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허전한 느낌? 이게 무슨 감정인지 나도 모르겠다. 태어